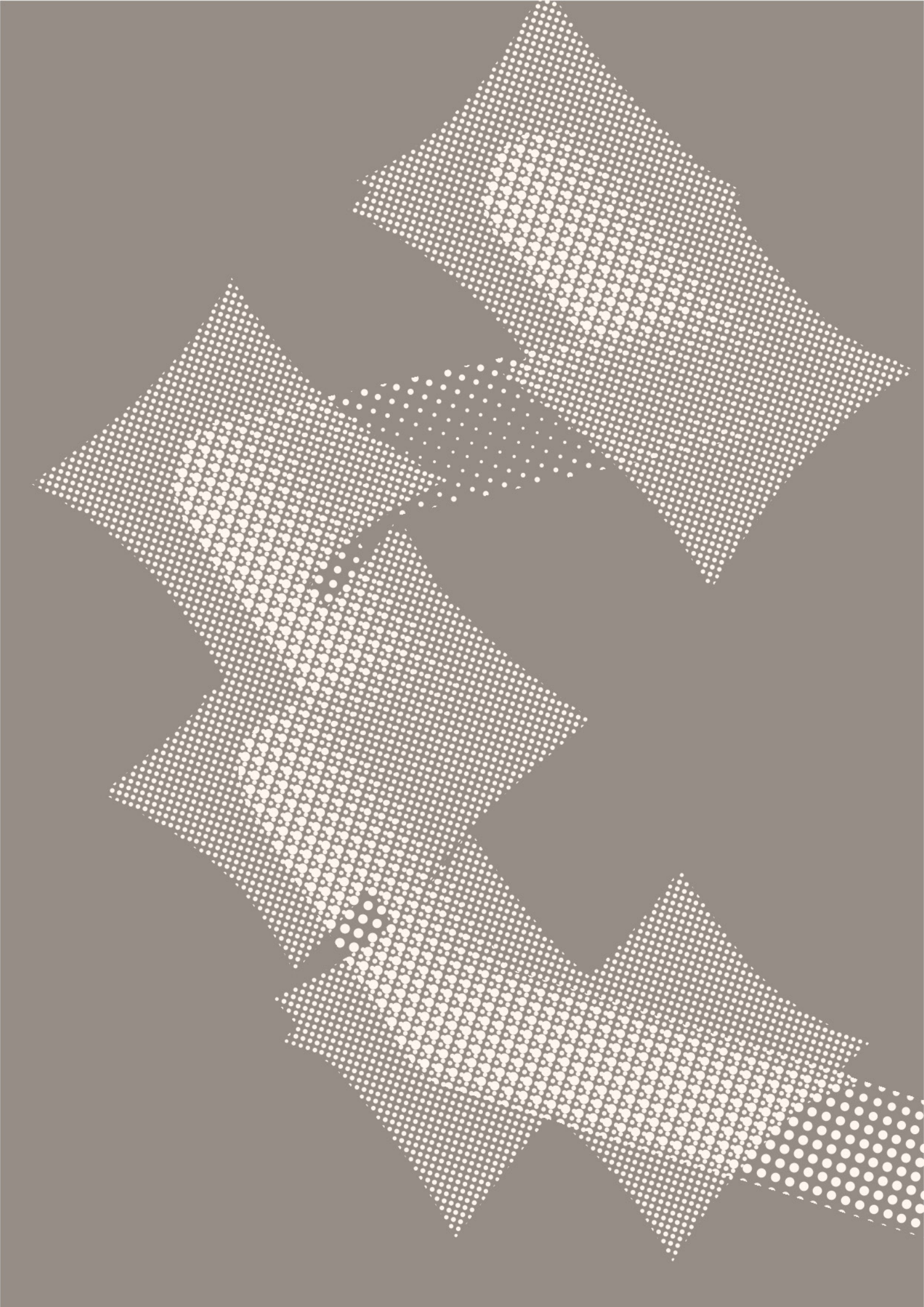


공예
도중

길목
한켠

그 공간



목차

| 1 | 참여작가 소개

- 1.1. 뜨심 심은주 공예가 4
- 1.2. 메르세라믹 이승윤 공예가 9
- 1.3. 민트스마일글라스 이지현 공예가 14
- 1.4. 보들핸드메이드조이 채진주 공예가 19
- 1.5. 셀레네 진예슬 공예가 24
- 1.6. 차라라라 차민주 공예가 29

| 2 | 프로젝트 소개

- 2.1. 프로젝트 진행배경 & 전시 사진 34
- 2.2. 프로젝트 추진과정 & 홍보물 이미지 35

| 3 | 크레딧

- 3.1. 노원문화재단 & 문화공간 정담 소개 36
- 3.2. 참여자 정보 37

뜨심

엄마로 살아가는 나와, 공예가로서 존재하는 나.
이 두 순간이 뜨개와 매듭처럼 촘촘히 이어져
지금의 삶을 채우고 있고,
그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따뜻한 하루를
오늘도 묵묵히 뜨개하며 매듭을 엮고 있습니다.

심은주 공예가

12월 크리스마스를 맞아, 케이크의 썬더와 크림의 포근함이 우리에게 주는 설렘처럼 가장 포근한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뜨심 작가는 세 딸의 엄마로서의 시간을 살아가던 중, 막내딸의 부탁으로 곰돌이 뜨개 인형을 만들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공예가로서의 시간이 어느덧 10년이 된 시점에서, 뜨개로 차곡차곡 쌓아온 포근한 시간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 함께 풀어내고자 하였다.

전시

2020	단체전 마디작기 전시회(마을과 마디)
2021	단체전 마디작기 전시회(마을과 마디)
2023	단체전 마디작기 전시회(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2025	단체전 마디작기 전시회(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 크리스마스 마크라메 월행잉, 2024, 1500×400mm

↑ 도일리 커튼, 2015, 1450×1450mm



↑ (1) 스님 도어벨, 2020, 30×60mm / (2) 색동저고리 도어벨, 2020, 30×60mm / (3) 천사 도어벨, 2020, 30×60mm

↗ (1) 코지 플라워 스트링백, 2024, 33×40mm / (2) 플러피 로즈백, 2024, 16.5×16.5×2.5mm

↗ 크리스마스 마크라메 오너먼트, 2023, 110~130×80mm (구성별 상이)

뜨심과 심은주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따뜻함을 엮는 기술 뜨개, 마크라메로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엮어가며 일상이 예술이 되는 행복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갑니다.

언제 처음 공예(뜨개)를 시작한 건가요?

2013년 북카페 다락에서 카페지기 자원활동을 시작했어요. 늦둥이 막내가 카페에 전시되어 있던 작은 곰인형을 떠달라고 조르면서 뜨개인생이 시작되었네요. 사주면 안되냐니까 엄마가 꼭 떠달라고.. 가끔 엄마가 자기보다 뜨개에 집중할 때면 내가 왜그랬을까~ 그러지 말걸 하면서 자책, 후회해요.ㅋㅋ 고3 수험생인 지금은 돈 많이 벌어오라고 합니다.

첫 전환점에 마주했을 때의

감정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뜨개를 시작하고 5년쯤 되었을 때, 너무 오래 앉아 뜨개를 많이 해서 꼬리뼈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도수치료를 6개월간 받고 관찮아질수 있었답니다. 그땐 하루 평균10시간 이상은 뜨개를 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2명, 유치원생 1명을 키우며 받는 스트레스를 뜨개작업에 녹여냈었던 것 같아요. 낮에는 툴툴 새벽엔 오롯한 나의 시간을 즐기며 몸이 힘든 줄도 몰랐던 때였어요. 몸으로 이상이 오면서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에 부딪쳤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고 힐링하는것에 큰 의미가 있으니 계속하자 하고 결정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작품 중, 작가님 개인의 '시간의 무게'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느끼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일리커튼이에요. 저의 도안실력을 키워준게 도일리 뜨개입니다. 도일리를 뜨면서 뜨개의 원리를 깨우치고, 변형하고,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어요. 예쁜 도일리를 한 장 한 장 모아, 뽀뽀하게 풀을 먹이고 다림질을 하고, 한장한장이어 커튼을 만들 때 시간의 느낌과 빠름을 동시에 느끼는 모순된 작업입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2000년에 분양받아 입주한 한곳이 공릉동이에요. 시댁,친정이 모두 강원도여서 진출입이 용이하죠. 마을공동체활동이 활발한 노원에서 결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게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원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시 끝나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였나요?

전시회를 준비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어렵풋 하던 계획들이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입니다. 앞으로도 도전하는 날들이 계속되어질 것 같아요.

딸들과 함께 작업을 만들어 나가신다고 들었어요.

따님들이 작업의 시작이자 영감의 원천이신 거 같은데,

혹시 따님들께 꼭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JY, JK, JS. 지금까지 너희들의 응원, 지지, 지원 너무 고마워. 엄마의 새로운 도전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해 줄거지? 알바비 꼭 꼭 챙겨줄게! 고마워~. 사랑해~.





뜨심

-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83길 29, 2층
 가는 길 공릉역 3번 출구에서 375m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8:00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말(토, 일요일) 조율 후 예약 가능
- 운영방식 [상품 구입]
 · 아이디어스, 온라인 네이버스토어
 [클래스 문의]
 · 출강 / 단체 클래스 / 원데이 클래스 / 사전 협의
- 문의처 010-9198-4954



메르세라믹

‘기억의 질감’ 주제로,

흙과 자연소재를 융합한 도자를 매체로 삼아

자연의 흔적을 기록합니다.

흙과 불, 시간이 만들어내는 회화적 무늬를

재료의 물성을 통해 남기며,

순환하는 자연과 그 속에서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느끼는 기억들을

조형적 언어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승윤 공예가

쫄하게 더워지는 여름날, 물 위에 비쳐지는 윤슬과 그
결들은 흘러가는 기억처럼 오래 남아 있었다. 도자 위
에 그려진 싱그러움과 잔잔한 결을 기록한 작가의 작
업은, 여름날 너무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늘 넋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다. 이 작업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
담겨 있던, 그 시간의 결에서 시작되었다.

전시

- 2024 단체전 <잊혀지면 안되는 작은 것들>(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단체전 한국예술인재단 신진예술인 역량강화 성과전<networking>
(파주 출판도시)
2025 개인전 <결적(挾摘)>(서래로 8, 1층 Fin)

수상

- 2022 kcdf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 서울권 창작자 1위 수상
2024 세계국가유산산업전 HERITAGE KOREA - 은상 수상

기타

- 2021.12. kcdf 전통문화산업 전문인력 선정
2022.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인턴 근무
2023. 2.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 기업 선정
2024. 3. 소담상회 아이디어스크래프트랩 입주작가 선정



- ↑ (1) 잔, 2024, 80×100×60mm /
 (2) 트레이, 2025, 245×130×15mm /
 (3) 소접시, 2023, 150×150×39mm /
 (4) 찻잔, 2023, 70×70×40mm
- ☞ 雲, 2023, 100×20×70mm, 120×120×70mm



- ↑ (1) 수저받침, 2025, 45×70×5mm /
- (2) 문플레이트, 2023, 120×120×25mm /
- (3) 웨이브 보울, 2023, 135×135×80mm
- ↗ 清流, 2025, 97×140×1mm (액자 297×420mm)

메르세라믹과 이승윤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도자가 가진 물성을 활용해 자연의 고유한 결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결이 이루는 곡선들, 빛의 변화 등 기억의 잔상을 남기는 자연의 아름다움의 요소를 도자의 주재료인 흙과 유약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공예(도자)를 시작한 건가요?

20살, 도예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처음 도자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손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보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그것을 직접 손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지금 공예가라는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자연과 자연현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슷한 시간과 형태 속에서도 '같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루는 흙이라는 언어 또한 세상에 하나뿐인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즐거움의 원동력이 되는 거 같습니다. '기억의 질감'에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자연 속 순간들은 시각, 촉각을 넘어 청각, 후각 등의 잔상이 결합된 기억으로 자리 잡으며 저마다의 질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저를 둘러싼 일상의 자연이 남긴 기억의 흔적을 순간들을 기록하며, 순환하는 자연 속 빠르게 사라지는 추상적인 감각과 기억을 영속적인 조형물로 남기고자 합니다.

한지 흙이라는게 처음 듣는 소재예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전통 도자 기법과 자연 재료의 융합에 주목하며, 한지를 흙과 결합한 '한지흙' 소지를 개발했습니다. 한지를 이루는 자연 닥섬유의 여러지만 질긴 물성과 도자의 견고함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한지의 섬유소는 고온의 소성 과정에서 소멸되며 흙 내부에 미세한 숨구멍과 독특한 결을 남깁니다. 이 숨구멍은 바람이 통하는 창호지처럼 흙이 숨쉬는 순간을 담아내고, 그 사이로 자연의 흔적이 스며들어 새로운 조형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노원문화재단과 첫 시도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노원구에서의 작업실 정착과 함께 맞물려 문화 재단과도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것에 정말 좋은 시너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노원의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다양한 지역의 분들에게도 노원의 좋은 행사들을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전시 후에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감사하게도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을 보시고 다양한 기업에서 콜라보 또는 주문제작 등 의뢰는 주셔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의 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작가님에게 작품에 영향을

줄 최근의 추억은 무엇일까요?

아침 작업을 선호해서 이른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계절이 변화하는 시기였어서 달라진 해의 길이, 겨울빛이 시작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매년 계절이 반복되지만 또 비슷함 속에 다름이 느껴지곤 하는데, 같음도 없는 자연의 매력이 작업에 항상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메르세라믹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183길 10, 1층(26. 2. ~ 운영 예정)
가는 길	공릉역 3번 출구에서 272m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5:00 ·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운영방식	[상품 구입] · 온라인 스토어: MERR, EQL, 로파서울 · 오프라인 스토어: 로파서울 쇼룸, 떠블유떠블유
문의처	010-9198-4954



민트스마일 글라스

빛과 유리조화로 생동감 있는 자연과
따뜻한 감성과 비비드한 싱그러움을
담아내는데 중점을 둡니다.

자연의 꽃과 나뭇잎,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처럼
자연과 삶 속에서 발견한 이야기들을
스테인드글라스로 표현하며,
유리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만들어내는
색과 그림자는 또 하나의 ‘빛의 예술’이 됩니다.

이지현 공예가

햇빛이 스테인드글라스의 유리를 투과해 면에 닿을 때의 영롱함이 우리의 일상에 맞닿을 수 있도록, 식물로 이를 연결한 작가의 표현 방식은 마치 여름의 생기와도 같았다. 일상과 맞닿아 있는 가장 가까운 예술이면서도 동시에 멀게 느껴지는 예술인 공예를, 보다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식은 전시의 의도와 어우러지며 그 동행을 시작하게 하였다.

전시

- 2023 단체전 제15회 한양예술대전 수상작 전시(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단체전 유리모아글라스아카데미단체전 HOME [채움:다움]
(이천 페르마따 바이오포카)
- 2024 제16회 한양예술대전 입선 수상작 전시(인사동 갤러리 라메르)
- 2025 개인전 민트스마일글라스 기획전 [빛의 정원] part1 기억(북촌 코너갤러리)

수상

- 2023 제15회 한양예술대전 입선, 장려상
- 2024 제16회 한양예술대전 입선

기타

- 2018 인테리어 재테크 서적 출간(라운북)
- 2004-2014 주얼리디자이너 활동
- 2018-2020 인테리어재테크 저자 하우스 스타일링디자이너 활동
- 2023-현재 민트스마일글라스 스테인드글라스 공방 대표



- ↑ 내 마음 속 작은 정원, 2024, 360×320mm
- 필로덴드론 제나두셀렘 유리식물
2024, 350×450mm





- ↑ 몬스테라 썬캐처 2종, 2024, 100×500mm
- ↖ (1) 칼라데아 스트로만데 멀티 컬러
2025, 250×300mm /
(2) 포인세티아, 2025, 200×300mm
- ← 유리식물 선인장 3종, 2024, 피쉬본 70×140mm
백운각 70×120mm, 만세선인장 70×140mm

민트스마일글라스와 이지현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저는 “유리로 상큼하고 싱그러운 자연의 빛과 색을 그리는 작가”입니다. 민트스마일글라스는 빛과 유리가 만나 만들어내는 생동감과 따뜻한 감성, 그리고 비비드한 싱그러움을 중점으로 두고 작업합니다. 저의 작품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에 밝은 에너지를 전하고 작은 미소를 건넬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공예(유리)를 시작한 건가요?

저는 2022년 봄, 우연히 TV에서 스테인드글라스 원데이 클래스를 보고 이 공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반짝이는 것에 끌려 주얼리 디자이너로 오래 활동하다가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로 멈췄던 저에게,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을 머금고 반짝이는 유리는 마치 보석처럼 느껴졌고, 단순한 취미를 넘어 제만의 언어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공예를 할 때 작품과 상품에 대한 구분 속에서 편견을 느끼거나 흔들리진 않았나요?

자영업과 예술가 사이에서 ‘팔리는 작업’에 집착하며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잠시 멈춰 돌아보니, 돈보다 내가 즐거운 창작이 길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확신을 얻었고, 그 감성과 색이 담긴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민트스마일글라스의 이미지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저는 제 선택을 스스로 즐기며, 진심에서 출발한 창작이 결국 제 길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 공예가 아닌 일상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영감을 받게 되는 순간들이 있나요?

식물 초보자들에게는 어렵고 난이도가 있는 아름다운 식물을 보며 자연스럽게 영감을 얻고, 그 영감이 곧바로 작업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일상과 작업이 분리되지 않을 만큼 깊이 맞물린 관계가 되었고,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새로운 식물이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제 제게 작업은 일이자 쉼이자, 일상 속 가장 자연스럽고 소중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저의 어린 시절과 젊은 날을 보낸 고향, 노원구는 수많은 추억과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들 하지만, 이곳에서는 여전히 부침개 하나를 나눠 먹고 무거운 짐도 함께 들어주는 따뜻한 정이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 열광하는 레트로한 감성과 사라지지 않은 옛것의 정취가 공존하는 노원구는 조용히 저만의 작업에 몰두하며 살아가기에도 참으로 좋은, 낭만 가득한 동네입니다.

유리로 식물을 작업하는 작가님이

최근에 작업해보고 싶은 식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알로카시아 실버 드래곤을 꼭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비늘처럼 독특한 질감의 잎을 표현하기에는 그리자이유 기법만큼 적합한 방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법을 더하면 실버 드래곤 특유의 텍스처가 한층 살아나, 더욱 리얼하고 존재감 있는 유리 식물이 탄생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스마일글라스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24바길 20, 1층

가는 길 상계역 5번 출구에서 451m

운영시간 화~일요일 10:00~20:00

· 휴무일: 매주 월, 토요일

운영방식 [상품 구입]

· 온라인 스토어: 네이버스토어, 아이디어스

[클래스 운영]

· 원데이 및 취미 클래스

· 정규반(자격증 1급, 2급) 클래스

· 창업교육반 클래스

· 유선, 블로그 댓글 문의를 통한 신청

문의처 · 0507-1383-6282

· 네이버 톡톡, 카카오톡 채널 [민트스마일글라스]



보들 핸드메이드조이

상상 속 이미지가 인형이 되어

마음에 와닿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순간을 위해

보들보들하고 포근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채진주 공예가

크리스마스는 추운 겨울 날씨 중 가장 따뜻한 겨울날이다. 온도는 차갑지만 그 하루의 특별함은 상반된 내면의 온도를 채워준다. 이는 보들핸드메이드조이의 인형들이 지닌 포근함과 닮아있다. 포근함과 보들보들함을 통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수고했다는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였다.

전시

- 2021 단체전 서울여성공예센터 윈도우 공예전시(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2023 전통한복 미니어처 인형한복 전시회(이화삼성교육문화관)
- 2024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사각사각 손그림 전시 - 봄날, 즐거움을 깨우는 시작 (Gallery the Colour)

아트페어

- 2021 광주 국제 ACE 일러스트레이션 페어(김대중컨벤션센터)
K핸드메이드페어(코엑스)
- 2022 K핸드메이드페어(코엑스)
- 2023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15(코엑스)
- 2024 핸드아티코리아(코엑스)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18(코엑스)
- 2025 서울일러스트레이션페어 19(코엑스)

수상

- 2020 제2회 서울여성공예센터 굿즈공모전 - 우수 굿즈상 수상(여성 공예가 DIY 키트)
- 2025 우수 문화상품 지정 - 도서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그림 작업)



↑ 조랭멍, 조랭덕, 2017, 100×150mm

↑ 상록이, 2015, 대 120×220mm, 소 80×140mm



↑ 허그멀 키링, 2024, 135×150mm

↑ (1) 큰 꼬마 체리, 2020, 60×130mm / (2) 쪼꼬미 빼약이 키링, 2023, 대 90×85mm, 소 50×48mm /
(3) 과일 동물 키링, 2025, 굴곰 90×70mm, 레멍 80×15mm, 토마냥 90×70mm

보들핸드메이드조이와 채진주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눈과 손에 담으면 마음이 보드라워지는 그림과 인형을 만듭니다. 『엄마가 만들고 딸이 그린 한식 레시피』, 『공주 박물관』, 『송이네 여덟 식구』등 다수의 책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들핸드메이드 조이라는 브랜드로 다양한 봉제 인형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노원구 공릉동에 공방 겸 오프라인 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공예(인형)를 시작한 건가요?

대학생 때 취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을 만들게 된 계기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이라는 물건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내성적인 아이였던 제게 인형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게 되고 모으게 되고 나만의 인형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공예를 작업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얼굴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사실 제일 좋은 순간이지만 가장 어려운 과정이기도 해요. 인형에게 생명력을 불어넣고, 나와 눈 마주치는 그 순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수많은 작품 중, 작가님 개인의 '시간의 무게'가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느끼는 작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상록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처음 상록이를 만들었을 때와 지금의 상록이는 표면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상록이가 앓을 수도 있고 설 수도 있게 만들기 위해 도안을 10번도 넘게 수정하였고 사실 아직도 완벽히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작가님의

공예가로서의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요?

그림과 인형작업을 함께 하는 사람으로서 두 작업의 시너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작업이 함께 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전시 끝나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였나요?

본인의 작업 세계가 어떻게 더 정리되거나 확장된 것 같나요?

전시를 보니 인형공방을 운영하기 위해 대중적이고, 만들기 쉽고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있는 인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던 시간들이 한 눈에 보였습니다. 그 방향도 일부 유지하면서 조금은 덜 대중적이고 공이 들더라도 나의 구체적인 취향과 개성이 담긴 인형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원문화재단과 첫 시도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어떤 관계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앞으로의 작품도 보여드리고 인형을 만드는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작가님의 인형들이 작가님한테 말을 걸어준다면

어떤 말일까요?

올해 만들고 나서 고객님들께 선보이지 못한 신작 인형들이 있는데 빨리 데뷔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빨리 세상으로 내보내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고!'라고 할 것 같네요. ㅎ





보들핸드메이드조이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동일로 176길 21, 1층
 가는 길 태릉입구역 4번 출구에서 210m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18:00
 · 휴게시간 12:00~14:00

운영방식 [상품 구입]
 · 온라인 네이버스토어
 [클래스 운영]
 · 원데이 클래스
 · 네이버스토어 예약

문의처 02-6953-5986



셀레네

헤어질 때까지 아끼고 함께하며
결국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는
‘가치 있는 가족 공예작품’으로 존재하고자 합니다.

진예슬 공예가

가족은 빛이 바래고 손때가 스며드는 시간의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공예이다. 헤어질 때까지 함께하고 싶은 셀레네의 가족 공예는 작가 개인의 공예가가 되는 과정까지에도 작은 도전들이 겹겹이 쌓여 가족공예가 평생 재밌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로 자리하였다. 그 시간들은 가족 공예가 평생 재미있고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는 존재로 자리하게 하였다. 비록 지금의 순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가족처럼 변화하며 손때와 빛 바램이 멋으로 남기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전시

- 2019 국제작은그림미술제(인사동 한국미술관)
한국가족공예아카데미 회원전(인사동 경인미술관)
한국가족공예아카데미 회원전(북한강갤러리)
- 2020 가족공예전(인사동 경인미술관)
셀레네 가족공예전(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2021 셀레네 가족공예전(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 2024 종로패션워크(광화문광장)
한복새활용가방(안녕인사동)

아트페어

- 2020 디자인아트페어(예술의 전당)
- 2020 서울디자인페스티벌(코엑스)
- 2021 서울디자인페스티벌(코엑스)
- 2022 핸드아트코리아(코엑스)
- 2023 지구하다 페스티벌(광화문광장)
핸드아트코리아(코엑스)

수상

- 2019 대한민국창작미술대전 입선
- 2019 한양예술대전 특선, 입선

기타

- 2020~2022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입주작가
- 2019~현재 가족공방 셀레네 대표



↑ 숄더백, 2021, 380×140×580mm

↑ 브리프케이스, 2021, 380×120×300mm



↑ (1) 세로형 크로스백, 2020, 100×50×180mm / (2) 뚜껑 명함지갑, 2020, 100×60mm / (3) 슬롯형 카드지갑, 2020, 100×70mm

↑ (1) 가로형 크로스백, 2020, 220×50×140mm / (5) 포켓백, 2020, 130×30×80mm

셀레네와 진예슬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2020년부터 서울 노원구에서 '셀레네 가족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작품의 디자인 구상부터 최종 제작까지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고 있으며, 특히 가방류 제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공예(가족)를 시작한 건가요?

직장생활 외에 별다른 취미생활 없이 단조로운 삶을 반복하고 있던 중, 가까운 친구가 가족공예 원데이클래스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그 경험이 곧 저의 첫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창작 활동에 몰입하게 된 중요한 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던 전공과 다른 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생겼던 고민,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오랜 취미였던 가족공예를 업으로 도전하면서 '이거라면 내가 평생 재밌게 그리고 잘 할 수 있겠다'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업과정이 순탄하진 않았는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으로 힘들기도 했고, 기본부터 철저히 배우고 끊임없이 연습하는데 집중했어요. 지금의 '셀레네'는 큰 도약이 아닌 작은 성과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지금 공예가라는 길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와 원동력이 있나요?

감사하게도 4~5년 이상 꾸준히 셀레네를 찾아주시는 정규수강생분들인거 같아요. 말주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저는 말주변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얼굴을 보며 작업과 삶을 공유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공예로 이어진 깊은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보내주시는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 덕분에, 단순한 공간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인연들이 셀레네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하고 감사한 원동력입니다.

제작했던 모든 작품을 애정하시겠지만

특히나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나 작업물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가장 특별한 애정을 느끼는 작업물은 바로 '한복 재활용(Up-cycling) 네트백'입니다. 이 작품은 입체적인 네트 조직을 구상하고 엮어 나가는 과정 자체가 매우 흥미롭고 더욱이 이질적인 소재들의 조화가 매력을 더합니다. 한지가죽의 견고한 물성과 내부 이너파우치로 사용된 한복 원단의 부드럽게 흘러 내리는 실루엣이 대비되는 매력이 존재해요, 또 이 네트백은 내부 파우치 원단을 교체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분위기의 가방이 탄생하는데, 이는 제가 추구하는 실용적이면서 이색적인 가치를 잘 구현해낸 작품이기에 가장 좋아합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처음 노원에 자리 잡게 된 계기는 2020년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입주하면서부터였어요. 그러면서 노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 특유의 푸근하고 정감 있는 분위기가 작업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편안한 일상이 창작을 지속하는 데 좋은 기반이 된다고 느꼈습니다. 노원은 지금도 일상과 작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터전입니다.

가족의 시간의 흐름에 생기는 '멋'처럼

작가님에게도 시간이 지나며 생긴 '나만의 멋'은 무엇일까요?

매번 새로운 시도에 집중하다 보니 제 작품의 공통점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셀레네 작품 같다'는 말을 들으며, 제 경험과 성향, 무의식의 미감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쌓아온 작업의 태도와 시각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스타일'이 된 것입니다. 저에게 '시간이 빚어낸 멋'은 바로, 저의 의도를 넘어서서 곳에서 대중이 발견해 주는, 자연스럽게 스며든 '셀레네만의 무형적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합니다.





셀레네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597-4, 2층
 가는 길 태릉입구역 3번 출구에서 247m
 운영시간 월~일요일 10:00~17:00
 · 사전 연락 후 방문

운영방식 [클래스 운영]
 · 화/토/일 정규 클래스(취미/전문가)
 · 원데이 클래스, 출강, 단체수업 진행
 · 유선 문의를 통한 예약 가능

문의처 02-6953-5986



차라라라

전통과 현대, 현실과 환상이 맞닿는 그 경계에서.
차라라라는 잊혀진 자개의 빛을 되살려,
오늘의 세계 속에 다시금 전통의 이야기를
피워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차민주 공예가

할머니의 자개장은 작가의 시작점이었다.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게 다가가길 바랐던 도전은, 수많은 실패와 난관, 완성 이후의 부족함, 작품이 공개되기 전의 두려움과 설렘까지, 많은 시간과 감정의 사이를 남겼다. 바닷가에 흩뿌려진 조개껍데기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 영롱한 자개가 되듯, 작가 또한 그 성장의 시간들을 지나며 빛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풀어냈다.

전시

2025

단체전 노원구청 중소기업 전시회(노원구청)

수상

2025

보령시 관광기념품 장려상
평창올림픽 플라자



↑ 몽춘(夢春) 책가도, 2025, 1500×1000mm



↑ (1) 고양이 자개 스티커 2종, 2025, 70×80mm / (2) 자개 헤어집게 5종, 2025, 90×45mm

➤ 몽춘이 자개 키링 랜덤박스, 2025, 80×80×130mm

차라라와 차민주 공예가를 소개해주세요.

차라라라는 사라져가던 전통의 빛, 자개(螺鈿)를 키치하게 재해석하는 브랜드입니다. 저희는 현재, 자개의 영롱한 빛 속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를 오늘의 감각으로 풀어내며, 일상 속에서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새로운 형태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언제 처음 공예(자개)를 시작한 건가요?

할머니 댁에 갈 때마다 자개장은 저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손때 묻은 가구를 버리기 시작했고, 추억이 깃든 자개농이 분리수거장에 놓인 모습을 보며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렇게 쉽게 사라져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자개를 활용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품이나 상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자개'입니다. 앞선 고민처럼, 자개라는 전통 소재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도록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국적인 정서와 자개의 본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통의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개 작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개'라고 들었을 때 느끼는 비싸고 멀게만 느껴지는 이미지를 깨고, 누구나 손에 닿는 따뜻한 예술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나의 첫 시작을 생각했을 때 작품이나 소재, 작업과정 중에

하나를 상징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작품 / 소재 / 과정일까요?

첫 시작은 너무 우당탕탕이라서 뚜렷한 장면으로 기억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의 과정을 상징한다면 자개가 되기 전의 조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차라라라의 캐릭터인 몽춘이는 앞으로 브랜드와 함께 성장할 친구이자, 자개와 한 몸으로 연결된 존재예요. 몽춘이를 중심으로 여러 상품과 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다보니 애정과 즐거움의 깊이도 큼니다. 아직은 완성형은 아닐지라도 끝없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품은 차라라라가 더 단단한 빛을 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원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 지역 중에서도 노원이 가장 자연스럽고 진정성 있게 제작을 펼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노원은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 여러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기에 자개라는 소재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적합한 환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고 자란 지역이다보니 익숙하고 편안한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있고,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지역인것도 큰 매력이었어요. 이런 공간적 특성이 자개라는 전통 소재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저의 작업과도 잘 어울린다고 느꼈습니다.

전시 끝나고 나서, 본인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였나요?

전시가 끝나고 난 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거리감'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어요. 노원구 주민분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 마치 우리 브랜드가 이 지역의 일상 속에 스며든 듯한 따뜻함이 남았어요. 사실 전시는 준비 과정부터 지치기 쉬운데,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너무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고, 덕분에 '다음 전시도 해보고 싶다'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죠.

몽춘이는 가장 반짝이는 것을 흠쳐간다고 하는데,

몽춘이에게만큼은 절대 빼가지 않을 꿈이 있을까요?

"몽춘이는 반짝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에게도 절대 빼앗기고 싶지 않은 제 꿈이 있어요." 바로 사람들이 '자개'라는 소재를 바라볼 때 느끼는 설렘과 감탄, 그리고 갖고 싶어지는 그 작은 욕망이에요. 자개가 주는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하고 싶다는 마음, 그 반짝이는 순간만큼은 몽춘이에게도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아요!





차라라라

공방 주소	서울 노원구 공릉동 382-21
가는 길	공릉역 4번 출구에서 176m
운영시간	월~토요일 10:00~19:00
운영방식	[상품 구입] · 온라인: 차라라라 사이트 · 오프라인: 무유무유(강동 아이파크몰, 일산 교보문구점) [클래스 운영] · 원데이 클래스 예약: 네이버예약 · 출강 문의: chyalalala@gmail.com
문의처	0507-1382-1742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 책상 위 작은 트레이,
약속 전 챙겨 가는 액세서리까지.
우리의 일상 가장 가까이에 공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곳곳에도 70여 곳의 공방이
이 조용한 창작의 시간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을 닫는 공방들이 늘어나며,
지역 속 공예의 숨은 가치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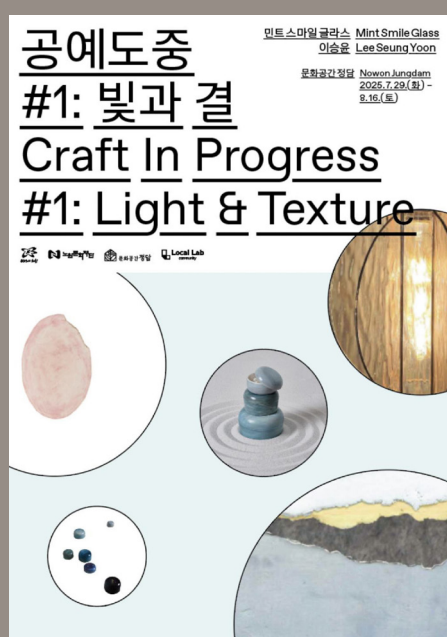
우리는 이들의 작업과 이야기를 지역 주민에게
다시 연결하고자 본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 제1회 공예도중 <빛 결> 전시 전경
- 제3회 공예도중 <케이크> 전시 전경
- 제2회 공예도중 <사이> 전시 전경



6월/ 시작	노원구 지역 공방 70여 곳 조사 및 협력 파트너 확보	전시 시리즈의 큰 방향을 '계절성'으로 설정
7~8월/ #1	여름의 감각을 보여줄 작가 섭외	'빛'과 '재료의 결'을 여름과 연결해 표현 〈공예도중 : 빛 결〉 전시 진행
9월/ 점검	지역 공방 수요조사 (16곳 참여 희망)	그중 4곳 선정해 다음 전시 기획 추진
11월/ #2	수능을 기점으로 '여운의 시간'과 공예의 '과정성'을 연결한 〈공예도중 : 사이〉 전시 진행	
12월/ #3	크리스마스의 설렘을 '섬유의 층층이 쌓이는 결'로 표현한 〈공예도중 : 케이크〉 전시 진행	



✦ 제1회 <공예도중 : 빛 결> 전시 포스터



✦ 제2회 <공예도중 : 사이> 전시 포스터



✦ 제3회 <공예도중 : 케이크> 전시 포스터

노원문화재단

노원문화재단은, 경계를 넘나드는 연결을 통해 노원 문화예술 글로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조적으로 모일 수 있는 도시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여, 노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노원문화재단은, 문화도시 노원의 지속가능한 연결, 협력, 창조 매개기관으로 예술가, 문화기획자, 문화동아리, 그리고 노원구민과 함께 다정한 현대의 문화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간 정담

매주 화~토요일 10:00~22:00

(일, 월요일, 법정공휴일 휴관 / 휴게시간 12:00~13:00)

노원구민들이 정다운 답소를 나누며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예술 공간입니다. 과거 자전거 대여소였던 공간을 전시와 주민 휴게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발행처	노원문화재단
발행인	강원재(이사장)
발행일	2025. 12. 28.
기획총괄	신정호(문화진흥부 부장)
기획운영	최지희(문화진흥부) 로컬랩커뮤니티(김동환 대표, 강지은 COO)
사진촬영	아이엠포토그래피
디자인	타입그래피(홍보물디자인) 노드메이트(도록디자인)

